

## 이정현 보수여당 첫 호남 대표... '거위의 꿈' 현실로

(이정현 대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곡성 출신 새누리당 대표 선출... 한국 정치사 새 이정표

지역주의 정치권 변화 예고... 차기 대선구도 뒤흔들 듯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이 9일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됐다. 호남 출신이 보수 여당의 대표로 선출된 것은 사상 최초로,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그의 당선은 당장 보수 여당의 변화는 물론 지역주의에 근간한 정치권에 변화를 몰고 오면서 차기 대선 구도를 뒤흔들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이날 점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4차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후보는 대의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4만4421표를 득표, 3만1946표에 그친 대구·경북(TK) 출신의 비박(비박근혜)계 주호영 의원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최고위원에는 조원진, 이상우, 강석호, 최연혜 후보가 당선됐으며 정년 최고위원으로는 유창수 후보가 승리했다. 최고위원 가운데 조원진, 이상우, 최연혜 후보는 진박 주자라는 점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는 강한 진박 색채를 띠게 됐다.

이로써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표에 오른 황우여 전 대표에 이어 4년 만에 진박 주류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지난 4·13 총선 참패로 물러난 김무성 전 대표의 비주류 지도부를 교체하게 됐다.

비주류 주자들은 지난 총선 패배 책임론과 당의 혁신과 변화를 내세웠으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무성 전 대표 등 비주류 진영 인사들이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극단으로 치 달았던 계파갈등 해소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당정 협력관계 복원,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대야관계 재정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도룩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대선 정권 재창출 토대 마련을 위해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 등 중책을 맡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계파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비주류 인사들의 탈당 등 여권은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현 대표의 당선은 그가 주문처럼 외쳤던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는 진심과 변화를 원하는 새누리당 당원들의 열망이 결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의 당선은 호남에 이어 영남에서도 지역주의의 장벽을 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그의 대표 당선은 실질적으로 영남 당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등



당대표 환호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박 진영의 측면 지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 당선은 한 편의 '드라마'라는 평가다. 호남 출신의 말단 당직자로 출발한 그가 지역주의의 장벽을 깨고 3선 의원으로 올라서더니 보수 여당의 당 대표까지 됐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호남 출신의 비주류에, 명문대가 아닌 비엘리트 출신이 '성공 신화'를 썼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선 구도의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정현 후보 당선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선 승리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박 지도부 구성에 따른 비박 대선 주자들의 이탈 등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정현 후보의 대표 당선으로 차기 대선에서 호남의 새누리당 후보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출신의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사실상 보수 여당에 혁명적인 일이며 지역주의의 타파 측면에서 정치권 전반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가 당의 화합과 함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미래에셋 여수 경도에 5년간 1조1천억 투자 2년 최고수준 리조트 조성

미래에셋 금융그룹 컨소시엄이 여수 경도에 앞으로 5년간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에셋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으로 올해 말까지 전남도, 전남개발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 2021년 아시아 최고 수준의 리조트를 조성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무리한 투자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복합리조트 공도 탈락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민간 자본 유치로 활로를 뚫게 됐다.

9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여수의 경도 해양관광단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남개발공사의 제안입찰에서 국내 최대 금융그룹 미래에셋(회장 박원주)과 영국계 국제투자회사 캐슬피닉스(CastlePines)가 7대3으로 출사하는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에 선정됐다. 지난 7월 18일부터 2주간 실시된 제안입찰에는 중국계 자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2곳도 참여했으나 사업 안정성 미흡, 난개발 가능성 등으로 인해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골프장과 콘도 등 경도 골프엔리조트 시설과 부지를 3423억원에 일괄 매입하고, 향후 5년간 75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등 최소 1조883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을 경도에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전남개발공사에 제출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1년까지 경도에 호텔, 빌라, 요트마리나, 워터파크, 해상 케이블카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명품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같은 투자 금액은 전남의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경도에 아시아 최고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여수엑스포 시설의 사후 활용에 송풍이 트이고 서남해안 투자활성화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전남 관광레저산업 발전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금메달 기대주 줄줄이 탈락... 한국 '金10-10위' 차질



▶ 관련기사 18·19면

한국 선수단의 리우 올림픽 '10·10'(금메달 10개·총합 톱 10) 시나리오가 차질을 빚게 될 위기다. 금메달이 기대됐던 종목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면서 목표 달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 대표팀은 9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올림픽 개막 후 사흘째 경기에서 금메달이 기대됐던 종목에서 메달 사냥에 실패했다.

'금메달 기대주'였던 안창림은 이날 유도 남자 73kg급 16강에서 디르크 판 티첼트(벨기에)에게 절반패를 당하면서 물러났다. '세계 랭킹 1위'인 안창림은 1회전

부전승, 2회전 한판승으로 산뜻한 출발을 했지만 3회전에서 만난 판 티첼트(세계 18위)에게 뜻밖의 일격을 당했다.

'세계랭킹 2위'인 김잔디도 유도 여자 57kg급에 나섰다 브라질의 하파엘라 시우바(세계 11위)에게 절반패로 물러나 탈락했다. 앞서, '세계랭킹 1위' 선수들이 유도 남자 60kg급 김원진(양주시청), 66kg급 안

바울(남양주시청)도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올림픽 펜싱 사브르 개인전 2연패를 노렸던 김지연도 16강에서 로레타 굴로타(이탈리아)에게 져 탈락했다. '양궁 세계랭킹 1위'인 김우진(24·청주시청)도 개인전 32강에서 리아우 에가 에가사(인도네시아)에게 졌다. 그는 유력한 2관왕 후보였다. 진중오도 세계기록을 갖고 있던 10m 공기권총에서 부진, 메달을 따지 못했다.

40년 만에 메달 획득을 노리는 여자배구는 A조 2차전에서 러시아에 패했다. 여자핸드볼도 조별리그 2차전에서 스웨덴에

패해 2패를 기록했다. 여자 하키 역시 2연패를 당했다.

/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힘내라 코리아! Rio 2016

10일(수) <한국시간>  
 07:00 역도 남자 69kg급 원정식 출전  
 09:00 사격 남자 50m 권총 진중오 출전  
 11일(목)  
 04:00 축구 예선 대한민국 vs 멕시코  
 06:02 양궁 여자 개인 64강 최미선 출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홍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 유명비화팅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료 요금부담) www.hera.co.kr